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5남·7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4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4주간 고린도전후서를 공부합니다. (강사 이범석 목사) 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부활절 입교인을 위한 교육이 토요일(12일) 오후 3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청파 산악회에서 북한산 진달래 능선으로 산행을 갑니다. 12일(토) 오전 10시 수유리 4.19 기념공원 정문에서 모입니다.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저녁 7:30에 고난주간 기도회가 열립니다.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4월 27일에 열립니다. 4월 20일까지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개인, 기업체, 예술품 등)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8일(화) 오전 10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의 실천사항을 힘써 지킵니다.

겔 37:1~14 / 시 130
롬 8:6~11 / 요 11:1~45

요 12:12~19

오늘 식당 봉사 : 김윤정 조병주 최은미 박시내 김명하 오형일 윤성중
다음 주 식당봉사 : 장혜숙 정현선 정영례 양정화 박진숙 추현영 유병선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상 고온으로 꽃들이 일찍 피더니 갑자기 부는 찬바람에 후드득 꽃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네 마음이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조건에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눈뜨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과 아집으로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곽상준 최경미 구명자 권미정 김금순 김동호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민 이해령 김정주
 김정미 김정진 김혜정 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수정 김지호 전혜리
 김필순 김혜영 김혜진 노성희 김만균 민병배 문현미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윤숙 방문성 박혜경 방민방 준배재경
 이수정 송형운 하미림 시시권 백경임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유상진 유은정 윤창서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혁순 이수연 이에서 이용현 이우원 옥귀희
 이재훈 이증자 김창경 임영정경례 장동훈 정은선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정복순 정연희 정원석 김현영 정현숙 조경숙 이두섭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완식 임정자 허준호 홍복선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순배 김중현 성귀옥 김필순 박준희 이기분 방민 안봉원 조병옥
 안정자 오진훈 노순옥 유동호 유병선 정현선 윤석철 장혜숙 이병철
 김현진 임영정경례 전인섭 최윤희 한미영 무명15

녹색꿈헌금

안종일 정현주 추현영 무명

백혜숙	박성희	고숙이	정두리
신진식	최경미	정복순	이은옥
장영숙	신영신	박정숙	박경원
노순옥	진정숙	노순옥	문금석
박홍재	박홍재	백묘현	문복순
권미숙	박미영	권미숙	허정운
김금순	김금순	유금주	김금순
곽권희	윤수진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안홍숙
정영선	홍춘숙	홍춘혜	김경혜
박혜경	박혜경	최영혜	백성래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마음으로 읽는 글

당신께 바치는 노래4

- 타고르

내 생명의 생명이며,
내 몸을 늘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의 살아 있는 손길이
내 온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모든 거짓을 찢어내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 이성(理性)의 등잔에/ 불을 켜신
그 진리가 바로 당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으로부터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내 사랑이 늘 꽃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은
내 가슴 속 가장 성스러운 그곳에
당신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으로 당신을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큰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함께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십시오. 그릇된 행실을 버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분주한 일상과 욕심에 이끌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5남 · 7여선교회 주관 설교 : 신진식 전도사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이용현 선생 송동준 집사

4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종락 이성범 정경례 박영신 한상경
	헌금위원	방문성 김금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영적인 황홀경

동반자에 대한 갈증은 우리를 너무 자주 잘못과 모험 속으로 몰아넣지만 그 갈증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독한 외로움을 보여준다. 우리는 심지어 친구들과 있을 때도 혼자 있다. 사람들 사이의 피상적인 관계는 공감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의 눈은 거품을 볼 수는 있지만 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볼 수 없다. 지독한 고뇌의 시간에 우리는 혼자다. 이런 외로움이 가슴으로 하여금 하느님과의 동행을 추구하도록 촉구한다. 그분만이 우리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신다. 그분만을 참으로 신뢰할 수 있다. 기도는 자신감으로서 우리의 속내를 하느님께 내어 보이는 믿음이다. 사람은 혼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고칠 수 없으며 위로받을 수 없는 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얻지 못한 무엇,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찾도록 만든다. 사람은 흔히 어떤 미끼를 뒤쫓지만 조만간 거짓된 만남 혹은 허약한 관계에 실망해서 물러난다. 이런 물러남 뒤에 기도가 뒤따를 수도 있다.

만일 우리의 행동이 하느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자랑할 가치가 무엇이겠는가? 거룩한 것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잃게 된다. 우리의 존재는 사소한 것들로 전락한다. 우리의 목숨을 팔아 망각을 사며, 맹목을 추구하는 대가로 고통과 수고를 지불한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빼앗길 수 없는 뒤편에 관심을 기울일 때만 우리의 내면의 삶을 통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유토피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파트너가 되려는 열망을 심어준다. 성스러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성이며 기도는 이 필연성에서 태어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느낌과 생각을 성스럽게 만든다. 일상적인 것을 하느님께 기도로 구할 때 모든 것이 성스럽게 된다.

기도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다. 사람 속에서 공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삶을 성스럽게 만들며 사람의 권리를 천부의 권리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 재물 혹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재능이 없는 사람도 존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은, 사람 속에 있지만 그 자신 너머에 있는 것,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 솟아난다. 그것은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예배할 수 있는 그의 능력,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는 말씀처럼 그 부르짖음이 하느님께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의 핵심 목표는 하느님을 감동시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우리 자신이 그분께 관심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분의 관심을 우리 자신의 관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배는 하느님께 동의하는 내적 행동이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점을 확신할 때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분께 청원할 수 있다. 찬양하는 것은 하느님의 관심을 느끼는 일이며, 청원하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느끼시게 하는 일이다.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생생하게 접촉하며, 우리의 관심과 그분의 뜻 사이에, 절망과 약속 사이에, 부족함과 풍요함 사이에 관계를 맺는다. 그분의 사랑을 불러냄으로서 우리가 아직 충실함을 확인한다.

기도는 영적인 황홀경이다. 그것은 마치 강한 열을 내뿜는 우리의 모든 활기찬 생각들이 정신을 박차고 나와 하느님을 향해 물줄기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단 하나의 열렬한 힘이 영혼의 은둔에서부터 지극한 분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끌어낸다. 우리는 그분의 빛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보려 하며, 우리의 삶을 정신과 씨름하도록 맡긴다. 그분의 이름을 확인하고 상념에 잠겨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거쳐, 느낌으로부터 생각으로, 이해로부터 헌신으로 들어감으로서 씨름이 격해진다. 기도라는 동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꿈과 소망에 대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을 시작할 때는 사태가 현실로 경험될 것에 대한 내면의 비전이 있다. 기도 역시 흔히 내면의 비전이며, 하느님을 향한 강렬한 꿈으로서, 사람의 영혼 속에 드러난 하느님의 의도를 반영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왕권 아래 세상이 완전하게 되며, 모든 육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께서 땅위의 모든 악한 자들을 도맡으실 때를 꿈꾼다. 우리는 하느님과 사람 모두가 품고 있는 희망이 성취될 것을 예상한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느님과 한 팀이 되어 꿈을 꾸는 일이며, 그 분의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그리는 일이다.

-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하느님을 찾는 사람」 중에서